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로 본 음악이론의 연구경향(2006-2015)¹⁾

■
최원선

1. 들어가면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서양음악이론’(western music theory)²⁾에 관한 최근 10년간(2006-2015)의 연구경향을 고찰하므로, 음악학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학문적 위치를 돌아보고, 국내 음악이론 연구의 의미 있는 추이를 확인하므로, 그 학문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는 1차 연구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중, 『음악과 민족』, 『음악과 문화』, 『서양음악학』, 『음악논단』, 『이화음악논집』, 『음악이론연구』, 『音樂·樂·學』, 『음악이론포럼』으로, 총 8개의 학술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내 음악 관련 전문학술지 중, ‘음악학의 전반’에 대해 다루는 학술지라는 점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음악학의 학술연구분야를 ‘예술체육(대분류)-음악학(중분류)’로 구분하며, 소분류로서 음악학, 음악사, 음악이론 등 21가지³⁾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내 음악 관련 전문학술지들의 출간 경향은, ‘국악(한국음악), 음악교육, 음악치료 전문’을 제외하면, 모두 ‘음악학’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의 연구들을 다룬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이론의 학문적 입장에서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진다. 즉, 음악이론이 음악학의 범주 내에서 갖는 학문적 독립성, 그리고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음악이론이 음악학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8437).

2)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음악이론은 음악적 실체에 상반되는 광의적 의미로서가 아닌 음악학의 세부 분류로서의 협의적 의미이며, 이하 음악이론은 ‘서양음악이론’을 뜻한다.

3) 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2017년 10월 3일 접속].

우리나라에서 음악이론이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정착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국내 유일의 음악이론학회인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usic Theory: KSMT, 2005~)가 발족된 지 이제 10여년이라는 점도 그 실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다루어진 음악이론 연구들에 관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표 1)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의 ‘예술체육(대분류)-음악학(중분류)’ 현황⁴⁾으로, 음악학 영역에 속하는 등재학술지는 예술체육 분야 등재학술지의 약 15.3%(17건/111건)을 차지한다.

(표 1) 예술체육(대분류)-음악학(중분류)의 등재학술지 목록

번호	등재년도	등재후보년도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비고
1	2001	1998	민족음악학회 ⁵⁾	음악과 민족	음악학
2	2004	1999	한국음악사학회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
3	2005	2002	한국국악학회	한국음악연구	한국음악
4	2005	2002	세계음악학회 ⁶⁾	음악과 문화	음악학
5	2006	2003	한국음악교육학회	음악교육연구	음악교육
6	2006	2003	한국서양음악학회 ⁷⁾	서양음악학	음악학
7	2007	2004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⁸⁾	음악논단	음악학
8	2009	2004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⁹⁾	이화음악논집	음악학
9	2009	2006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¹⁰⁾	음악이론연구	음악학
10	2011	2007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음악교육
11	2012	2007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음악치료
12	2015	2011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국악
13	2015	2011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음악치료
14	2016	2005	한국음악학학회 ¹¹⁾	音·樂·學	음악학
15	2016	2010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¹²⁾	음악이론포럼 (舊.연세음악연구)	음악학
16	2016	2010	한국국악교육학회	국악교육	국악
17	2016	2014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음악교수법연구	음악교육

4) https://www.nrf.re.kr/biz/journal/view?menu_no=13 [2017년 10월 3일 접속].

5) <http://www.musickorea.org/index.asp> [2017년 10월 3일 접속].

6) <http://www.worldmusic.or.kr> [2017년 10월 3일 접속].

(표 1)을 보면, 2006년 이후, 음악학 등재학술지의 약 76%(13건/17건), 그리고 ‘음악학의 전반’을 다루는 등재학술지의 약 75%(6건/8건)가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음악학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이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 (1)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비중은 어떠한가?
- (2) 최근, 우리나라 음악이론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 (3) 음악이론 분야의 양적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영역은 무엇인가?
- (4) 지난 10년간, 음악이론 연구의 의미 있는 추이는 무엇인가?

2. 연구경향에 관한 예비적 고찰

(표 2)는 ‘연구경향에 대한 ‘RISS 통합검색’¹³⁾과 ‘국회전자도서관 주제어 검색’¹⁴⁾을 거친 결과로, 음악이론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음악학 전체로 영역을 확대할 경우, 특히, 음악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7) <http://www.musicology.or.kr> [2017년 10월 3일 접속].

8) mrc.hanyang.ac.kr [2017년 10월 3일 접속].

9) musicie.ewha.ac.kr [2017년 10월 3일 접속].

10) wmri.snu.ac.kr [2017년 10월 3일 접속].

11) <http://musicologykorea.scholarweb.kr/main.do> [2017년 10월 3일 접속].

12) <http://www.ksmt.org> [2017년 10월 3일 접속].

13)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음악+연구&x=15&y=24> [2017년 10월 3일 접속];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국악+연구&x=16&y=20> [2017년 10월 3일 접속].

14) <http://dl.nanet.go.kr/SearchList.do> [2017년 10월 3일 접속].

(표 2) '연구경향'에 대한 선행연구(국내학술지)

음악학 관련 분야		저자(년도)	논문명
음악 교육	서양음악 교육	김현미(2015)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연구 경향 분석
		승윤희(2012)	음악교육에서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연구 경향 분석
		박기범(2011)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80년 이후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이가원(2010)	우리나라의 현악교육 연구 경향 분석: 음악교육 전공 석사 학위 논문(1974-2009)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석문주(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김미숙(2001)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국악교육	이지예(2016)	국악교육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형환 · 박소현 (2010)	국악교육 연구현황 분석: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김수현(2012)	일제 강점기 국악 관련 학술적 연구 경향 고찰
한국음악사학	임미선(2008)	한국음악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종족음악학	박미경(2009)	해외에서의 한국음악학 연구현황	

이 중, 김현미(2015)¹⁵⁾, 박기범(2011)¹⁶⁾, 석문주(2004)¹⁷⁾, 김미숙(2001)¹⁸⁾, 이지예(2015)¹⁹⁾의 연구는 연구 자료로서 음악 관련 전문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김현미는 『음악교육연구』에 게재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초록을 중심으로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통해, 주제들의 상호의미 관계를 파악하므로,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논하였다. 박기범은 198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경향을 연구주제, 인용분석, 연구주제 및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여, 국내 음악교육 연구가 과거 순수 학문적 성격에서 시류적인 성격의 학문으로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문주는 국외 음악교육 전문학술지인 Update, JRME, CRME, IJME에서 간행된 1990년 이후 논문들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에 따라 분석

15) 김현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연구 경향 분석 - ‘음악교육연구’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4/4 (2015): 49-68.

16) 박기범,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80년 이후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29/2 (2011): 57-76.

17) 석문주,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2004): 92-128.

18) 김미숙,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1 (2001): 1-19.

19) 이지예, “국악교육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5/1 (2016): 45-65.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김미숙은 국외 음악교육 전문학술지인 JRME의 1991년에서 2000년까지 연구들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별 빈도 분석을 통해 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지에는 2005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학술지에 수록된 국악교육 관련 논문들을 지도대상별, 연구영역별로 고찰한 결과를 기초로, 국악교육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반면, 박미경(2009)²⁰⁾의 연구는 역으로, 해외에서 한국음악학의 연구현황을 다루는 자료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그 결과, 해외에서는 한국음악학에 대해 학술논문, 입문서, 전문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양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음악학자들의 학문적 견해와 상이한 점이 확인되므로 한국음악학의 범주화와 국제적 학술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외에 학위논문에서 다뤄진 ‘연구경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음악교육 또는 음악치료 학위논문들의 연구주제에 관한 경향을 밝힌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음악치료 전문학술지 현황’을 다룬 조현아²¹⁾의 연구는 국내 음악 관련 전문학술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조현아는 음악치료 등재학술지인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2편(1999-2012년)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6편(2004-2012)의 비교·고찰을 통해 두 학술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이론의 연구경향에 관한 고찰은,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들과는 달리, 전무하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음악교육’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이 갖는 연구문제에 대해 다양한 ‘교수·지도안’을 포함한 문헌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등 다방면의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므로 ‘동향연구’가 갖는 연구 자료로서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악이론 연구는 ‘이론’이라는 학문이 갖는 다소 제한된 접근방식에서 그 부재의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내 음악이론 연구의 경향을 살피는 일은 음악이론의 ‘양적 확대와 질적 재고’란 측면에 있어 미래의 연구에 대한 전망인 동시에, 현재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이며 과거로부터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의미를 갖는 필수적인 연구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음악이론 동향 분석을 위해 첫째, 『음악과 민족』, 『음악과 문화』, 『서양음악학』, 『음악논단』, 『이화음악논집』, 『음악이론연구』, 『音·樂·學』, 『음악이론포럼』 등 8개 학술지의 간행시기별 음악이론 연구의 분포도 분석을 통해 기간별 추이를 추적하고, 둘째, 음악이론에 관한 연구주제 영역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된 경향을 밝히며, 셋째, 음악이론 연구의 학문적 연계와 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파악하고, 넷째, 통계 자

20) 박미경, “해외에서의 한국음악학 연구 현황,” 『한국음악연구』 45 (2009): 119-148.

21) 조현아, “국내 음악치료 전문학술지 연구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로 분석을 근거로 지난 10년간, 학문적 관점에서 음악이론의 의미 있는 추이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설계와 방법

3.1. 연구대상

1) 1차 연구대상

(표 3)은 『음악과 민족』, 『음악과 문화』, 『서양음악학』, 『음악논단』, 『이화음악논집』, 『음악이론연구』, 『音·樂·學』, 『음악이론포럼』 등 8개 학술지의 연도별 발행 논문 건수²²⁾ (2006-2015)를 나타낸다.

(표 3) 학술지별 발행 논문 건수(2006-2015)

년도	음악과 민족 ²³⁾	음악과 문화 ²⁴⁾	서양 음악학 ²⁵⁾	음악 논단 ²⁶⁾	이화음악논집 ²⁷⁾	음악이론연구 ²⁸⁾	音·樂·學 ²⁹⁾	음악이론포럼 ³⁰⁾	발행 논문 수
2015	30	16	12	11	18	17	10	14	128
2014	20	16	13	19	11	13	9	6	107
2013	26	15	12	14	10	9	9	4	99
2012	25	15	15	16	11	11	10	4	107
2011	32	15	20	12	11	13	12	7	122
2010	32	15	23	11	15	8	14	3	121
2009	33	19	21	7	11	8	8	7	114
2008	32	17	15	9	11	7	19	7	117
2007	35	19	28	9	15	9	13	7	135
2006	37	19	24	13	15	15	14	4	141
합	302	166	183	121	128	110	118	63	1,191

22) 논문 건수는 번역 논문, 학회대회보고, 참관기, 서평 등을 제외한 학술 연구논문들의 게재 건수를 의미한다.

2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a8c889725895b4bd [2017년 10월 3일 접속].

24)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a654ebd19152e1d0ffe0bdc3ef48d419 [2017년 10월 3일 접속].

25)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b808f21f803052cf [2017년 10월 3일

(표 3)에서와 같이, 이 연구의 1차 연구대상은 1,191편의 음악학 관련 논문들이다.

2) 2차 연구대상

(표 3)과 같은 음악학 자료들에서 음악이론 연구들을 추출하는 과정은 음악학과 음악이론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국내 음악학 연구들의 총체적인 맥락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학의 전 영역’을 다룬 학술지에서, 2차 연구대상인 ‘음악이론 영역’을 추출하는 기준과 그 범위 설정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표 4)는 대표적인 음악이론서 중 하나인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2002)에서 다루고 있는 음악이론의 영역을 항목화 한 것이다.

접속.

26)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06f56e0d6be11790 [2017년 10월 3일 접속.]

27)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d6aea9f5ce508bed [2017년 10월 3일 접속.]

28)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7ae7\(a34c3870735ffe0bdc3ef48d419](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7ae7(a34c3870735ffe0bdc3ef48d419) [2017년 10월 3일 접속.]

2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8338048a97556627ffe0bdc3ef48d419 [2017년 10월 3일 접속.]

30)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72788e47c1ca731cffe0bdc3ef48d419 [2017년 10월 3일 접속.]

(표 4)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의 목록³¹⁾

사변적(speculative) 전통	· 그리스 음악이론 · 고대 음악이론 · 중세 케논학 · 조율 · 하모닉스 · 음향과 음심리 · 음악이론과 수학
규정적(prescriptive) 전통	A. 음공간(· 중세초 음, 음계, 선법 · 르네상스 선법이론 · 17세기 음악이론 · 19세기 이원론적 음공간과 변형) B. 작곡이론(· 중세 오르가눔-디스칸투스-콘트라폰투스 · 르네상스 대위법교수 · 연주이론 · 대위법이론 · 12음이론) C. 시간(· 리듬기보 · 18, 19세기 리듬이론 · 20세기 이론의 리듬) D. 조성(· 조성 · 라모와 18세기 화성이론 · 19세기 화성이론 · 하인리히 쉐커)
서술적(descriptive) 전통	A. 음악분석 모델(· 음악과 수사학 · 형식 · 주제와 동기분석) B. 음악심리학(에너지학 음악심리학)

음악이론을 개괄적이며 통시대적인 안목으로 다루고 있는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에서의 분류는 칼 달하우스(Carl Dalhaus)의 시각인 사변적(speculative) 전통, 규정적(prescriptive) 전통, 분석적(analytical) 전통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변적 전통에는 ‘이론적 음악(musica theoretica)의 관점에서 음악의 본질과 음 체계에 관련된 이론들, 다시 말해, 음 체계의 기초와 구조에 관한 수학적 사유가 포함되며, 규정적 전통에는 ‘실천적 음악(musica practica)의 관점에서 음악의 실제와 관련된 이론들, 즉, 음악교육, 훈련과 밀접한 이론으로 교과목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이론들이 포함되며, 서술적 전통에는 완성된 음악작품을 묘사·기술하기 위해 작품 분석에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론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음악이론 분야의 다양한 성격과 분야에 대한 정신적, 개념적 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악이론의 역사』(2006)에서 김연은 음악이론 전통들 간의 경계가 항상 선명한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³²⁾ (표 5)는 『음악이론의 역사』에서의 분류이다.

31) Thomas Christensen, “Content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edited by Thomas Christens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vi-x.

32)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서울: 심설당, 2006), 26-27.

(표 5) 『음악이론의 역사』의 목록³³⁾

항목	내용
1. 피타고라스부터 짜를리노까지: 수·수학과 음악이론(1)	· 피타고라스 학파와 수의 상징성 · 하모니론과 천체의 음악 · 케논학과 기하학 · 조율 · 짜를리노와 세나리오 · 음악이론과 수·수학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2. 선법과 조	· 모드와 선법 · 성가 분류 체계에서의 중세 8개 교회선법 · 글라레아누스의 12선법 · 짜를리노와 선법 · 17세기 독일의 선법이론 · 폭스 vs 마테존
3. 종별대위법의 성립과 대위법 이론의 기능 및 의미	· 대위법 이전의 다성음악 · 대위법 이론의 성립과 텅크토리스 16세기의 대위법 이론과 짜를리노 · 6종, 7종 대위법도 있다? 종별대위법의 역사적 발전 · 『파르나소스』로 오르는 계단 · 대위법 이론의 기능 · 대위법의 의미
4. 계속저음·숫자저음 이론과 화음의 개념	·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새로운 음악양식의 대두 · 계속저음·바소 쿤티누오 · 숫자가 붙어 있지 않은 저음과 옥타브 규범 · 숫자저음 · 동시에 울리는 소리, 음악의 종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 · 17세기 초반의 화음 이론 · 18세기의 계속저음 이론 · 계속저음 이론과 오늘날의 화성이론
5. 라모와 근대화성학의 성립: 자연과 음악이론(1)	· 라모의 음악이론 · 화음의 전위 · 두 가지 기본화음의 형태 · 기초저음 종지 · 서브포지션의 개념과 계류음의 설명 · 화음의 생성 · 버금딸림음 버금딸림화음과 이중 사용 · 라모와 단3화음의 문제 · “화성학”으로서의 라모 이론
6. 선율이론과 악구구조 이론: 분석적 접근방식의 대두	· 마테존과 선율이론의 대두 · 18세기 후반의 음악 실제 · 리펠과 악구구조 이론 · 코흐와 악구구조 이론 · 작곡과정과 분석 · 악구구조 이론
7. 로마숫자, 조성, 화음의 기능	· 슈투페 이론과 로마숫자 화음 기보법 · 조성의 개념 정립 · 화성의 이원론과 독일의 기능이론 · 기초저음 이론 · “화성분석”의 절차와 의미
8. 음향학·심리학·음악이론: “과학”과 음악이론	· 과학혁명의 시기 음악이론과 과학 · 19세기 음악이론과 과학이 관계 · 헬름홀츠와 음 감각들의 이론 · 슈툼프와 음심리학 · 과학과 음악이론
9. 형식과 유기체론: 자연과 음악이론(2)	· 18세기 소나타 형식의 개념 · 19세기 소나타 형식에 관한 논의 · 마르크스의 형식론과 소나타 형식 · 형식과 유기체론
10. 쉐커의 이론과 쉐커식 분석이론	· 이론가 하인리히 쉐커와 쉐커식 분석이론 · 슈투페와 계층 · “순차진행 우선”과 근본선율 · “근본구조”의 개념 · 축약과 장식 · 쉐커 이론의 사상적 배경 · 쉐커식 분석이론의 토대
11. 음고류 집합이론: 수·수학과 음악이론(2)	· 무조성과 관련된 개념의 정립 · 작곡을 위한 12음 이론 · 미국의 조성 이후 이론가들 · 집합이론의 주요 개념들 · 조성 이후 이론의 성격
12. 1980년대 이후의 음악이론	· 인접학문과의 교류 · “음악분석” 개념의 변화 · “음악이론”의 개념 · 한국에서의 서양음악이론

33)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11-17.

『음악이론의 역사』에서의 항목과 그 내용은 상당부분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에서와 일치한다. 그러나, 분류와 배열상의 차이점이라면, 『음악이론의 역사』에서는 이론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의 전통을 복합적인 시각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즉, 고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배열 및, 각 시기별 중심이 되는 이론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음악적 시간의 문제들, 즉 리듬기보, 18, 19세기의 리듬이론, 20세기 음악의 리듬 및 음공간과 변형 등에 대해서는 항목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이론 연구의 주제 영역에 대해,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와 『음악이론의 역사』의 분류 내용과 배열을 중심으로 음악이론의 역사와 전통 및 영역별 구분에 기반을 두어 연구대상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게재 논문들의 내용 검토를 통해 (표 6)과 같이 기타 항목을 포함한 1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표 6) 연구주제 영역별 분류 예

항목	논문의 예
1. 그리스 음악이론·수와 음악이론	·스테파노 바네오의 레카네뎀 데 무지카 아우레아 제 2권에 의한 비율 연구(『이화음악논집』, 2008) ·고대에서 중세까지 토누스 연구(『이화음악논집』, 2009)
2. 선법과 조	·오케겔의 미사 L'Homme arme 중 키리에 분석에 적용된 15세기 선법이론(Modal theory)(『이화음악논집』, 2007) ·출판물을 통해 본 16세기 음악의 이론과 실제(『음악이론포럼』, 2007)
3. 대위법이론	·종별대위법을 적용한 리듬 연습의 교수법 제안(『음악이론연구』, 2011) ·폭스는 여전히 살아 있는가? 20세기 대위법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폭스의 유산(『음악이론연구』, 2013)
4. 계속저음·숫자저음 이론	·17-18세기 프랑스 이론서 원전연구: 숫자저음 실습과 이론에 나타난 <옥타브 규칙>의 의미와 해석(『서양음악학』, 2009) ·비아다나, 아가차리, 프레토리우스의 이론서에 제시된 초기 단계의 바소 콘티누오에 관한 논의의 비교 연구(『이화음악논집』, 2014)
5. 리듬기보·리듬이론·20세기 음악의 리듬	·낸캐로우의 자동피아노를 위한 「스터디」에 나타난 리듬 구조의 원리(『이화음악논집』, 2010) ·중세 비례 표기법에 관한 제안(『음악과 민족』, 2012)
6. 조성·화성이론	·장단조혼용 기법의 재조명: 화성분석을 위한 실제적 접근(『이화음악논집』, 2009) ·리스트 《발라드 2번》의 조성구조: 증3화음의 확장(『서양음악학』, 2011)
7. 과학과 음악이론	·화성 진행 법칙에 대한 암묵적 지식: 점화효과를 이용한 연구(『음악이론연구』, 2006) ·다성음악, 어떻게 듣는가? -다성음악 청취에 대한 음악 심리학 연구(『음악이론연구』, 2007)
8.	·조성음악의 주제 형식 유형: 센텐스 구조(『음악이론연구』, 2008)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	·순환형식으로서 클레멘티의 《피아노 소나타 Op. 13/6》 (1785) 소고(『음악이론연구』, 2015)
9. 쉐커이론·쉐커식 분석이론	·분석에 따른 다양한 연주 해석의 가능성(『음악이론포럼』, 2008) ·바로크 2부형식에 대한 쉐커식 분석 접근: 기존 분석의 재해석(『음악이론포럼』, 2015)
10. 12음 작곡이론·집합이론·조성이후이론	·부분집합내용(Subset Content)에 근거한 유사이론과 “베베른 작품 Op.3, No.1과 쇤베르크 작품 Op. 19, No. 4번”의 분석을 통해서 본 부분집합의 상호작용과 유사성관계(『음악논단』, 2010) ·조지 펄(George Perle)의 작품에 드러난 Twelve-Tone Tonality 연구(『음악논단』, 2013)
11. 음공간 변형이론	·네오리만 이론의 헥사토닉 시스템을 적용한 분석 연구(『서양음악학』, 2008) ·변형적 네트워크를 적용한 스크리아빈의 프렐류드 Op.74, No. 4 성부진행 분석 연구(『음악이론포럼』, 2012)
12.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	·“베토벤적인 것”에 대한 두 가지 담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 81a 《고별》 제1악장을 중심으로- (『서양음악학』, 2012) ·음악의 의미와 대상의 문제: 퍼스의 기호학적 접근(『서양음악학』, 2015)
13. 기타	·음악분석이론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음악과 문화』, 2006) ·서양음악용어의 한글표준화를 위한 논의(『음악논단』, 2007)

3.2. 연구방법 및 분류의 준거기준

음악이론 연구는 대개 ‘문헌연구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연구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을 매개로, 어떤 목표를,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 가’에 따라, 이론적 고찰, 교수법적 고찰, 분석적 고찰의 측면에서 조명 가능하다. 단, 이 같은 분류가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의 ‘이론적 고찰’은 역사적, 혹은 문헌적 고찰을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음악이론의 본질에 관한 연구 혹은 음악이론 체계의 질서에 관한 논의 등이 이에 해당되며, 특히, 기존 연구들의 비교 연구를 통한 고찰이나 이론으로서의 효용성 논의 및 이론의 제안 등을 포함한다. ‘교수법적 고찰’은 음악이론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논의, 교수법 제안, 혹은 교재 연구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기초음악이론, 음악이론 전공교과, 교양음악이론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음악교육 전문학술지들에 게재된 연구들이 주로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측면으로, 대학에서 활용되는 음악이론의 교수적 접근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적 고찰은 분석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작품의 구조적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한다. 특히, 이 범주에는 작품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의 제시, 혹은 이론의 적용 등 음악이론의 역사적 전통과 내용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으로 제한한다. 이는

분석의 주체인 연구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역사적, 문화적 측면과 함께 음악 외적 요소들에 의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경우³⁴⁾와 음악이론사적 전통에 바탕을 둔 분석과는 구분할 필요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다루지는 ‘분석적 고찰’의 범위는 작품으로부터 추론된 추상적인 것인 것들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써, 음들 간의 질서를 다루기 위한 시각으로서 분석에 접근하는 경우들 예를 들면, “베틀스존의 현악4중주에서 나타나는 V/iii의 새로운 기능” (『서양음악학』, 2012), “쇼팽의 마주르카 Op. 33/4에서 나타나는 나폴리 화음의 확장된 기능” (『음악이론포럼』, 2015) 등에 집중시키기 위해, 작품의 내용과악을 위해 연구자가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음악의 구체적인 가치에 대해 다루는 경우들 예를 들면, “아이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과 4번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 (『음악과 민족』, 2015), “제임스 맥밀란 음악에 나타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성향 《오소서 임마누엘》 작품을 중심으로” (『음악이론포럼』, 2015) 등은 배제시킨다.

(표 7)은 이 연구에서, 연구주제에 접근하는 연구방법들에 대한 분류 예이다.

(표 7) 연구방법별 분류 예

연구방법	논문의 예	연구주제 영역
이론적 고찰	15세기 선법이론(『이화음악논집』, 2006)	분류 2. 선법과 조
	짜를리노의 대위법에서 세나리오의 역할: 『화성의 체계』 제3권 제61장의 인용 관계를 중심으로(『이화음악논집』, 2009)	분류 1. 그리스 음악이론·수와 음악이론
	기호로서의 음악: 토픽 이론의 개념, 적용 그리고 비판 (『이화음악논집』, 2009)	분류 12.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
교수법적 고찰	연주자를 위한 기초음악이론 교육의 개선 방안(『서양음악학』, 2007)	13. 기타
	로마숫자를 통한 화성분석의 효용성을 위한 제언(『음악논단』, 2012)	6. 조성·화성이론
	교양 선택과목으로서 《음악의 기초이론》 교재 및 학습 자료연구(『음악이론포럼』, 2014)	13. 기타
분석적 고찰	브람스의 리듬구조에 관한 연구 - 크렘스의 "협화리듬, 불협화리듬" 이론을 중심으로(『음악과 민족』, 2006)	분류 5. 리듬이론
	쇼팽의 《발라드》 Op. 23의 형식에 관한 고찰(『음악이론연구』, 2008)	분류 8.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
	변형 이론을 이용한 무조음악 분석의 새로운 고찰: 3~5음군 집합을 연결하는 K-네트의 환원동형그라피를 중심으로(『이화음악논집』, 2013)	분류 11. 음공간·변형이론

34)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449.

3.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가 갖는 제한은 연구 자료의 분류와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 즉, 이를 위한 ‘객관성의 확보’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동시에 제일 문제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음악학의 연구영역 구분부터, 음악이론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그리고 학문적 연관 영역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범위와 범주를 어떻게 한정하는가’에 따라 그 ‘연구경향을 살피는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이론 내에서의 분류를 차치하고서라도, 음악학 학에서 ‘음악이론’이라는 영역을 한정하는 일조차 결코 단정적일 수 없다. 그 예로, 초기 음악이론사와 음악사의 영역이라든지, 이론적 분석의 범주와 음악학의 분석적 접근이라든지, 이에 대한 구분에 있어 모호한 잣대를 댈 수 있다. 음악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한 방법으로 단순한 현상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닌, 음악학을 다루는 통합적 측면이 다시 복합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학의 분류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일어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은 전공 교과목으로서의 성격이었음을 밝힌다. 즉, 연구가 ‘어떤 교과목에서 어떻게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또한 ‘융합’ 혹은 ‘통섭’의 시각이 21세기의 학문을 바라보는 새로운 측면이라면, 음악이 갖는 학문적 성격은 이미 이러한 시각들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음악지각인지 연구 고찰을 통한 무조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³⁵⁾을 분류할 때, 우선적으로 이 논문이 ‘음악의 지각인지’의 분류 일지, ‘음악이론’ 일지, 혹은 ‘음악교육’ 일지 결정짓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음악지각인지 과정을 통한 문제인식으로, 무조음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방법으로써 교수법적 측면을 따른 ‘음악이론’ 영역으로 분류한다. 이 같은 범주화는, 논문 내용의 질적 점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논문들에 대한 모든 영역별 분류는 음악이론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체 논문 내용의 고찰을 통해 각 연구자가 지향하는 연구목표에 따른 가중치로써 판단한다는 점을 밝힌다.

다음으로, 앞선 연구의 제한이 음악이론의 ‘분류화’에 있었다면, 두 번째는 연구방법의 ‘그룹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이론 연구의 주된 접근방식은 ‘분석적 고찰’로, 음악이론이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분석의 영역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연구자가 갖고 있는 학문적 토대에 따라 ‘분석이론’으로서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음악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들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들은 오늘날 음악이론과 분석을 보는 시각들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전히 이 두 영역에 대한 논쟁들이 다양한

35) 김예진, “음악지각인지 연구 고찰을 통한 무조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공학』 26 (2016), 135-149.

구도에서 조명되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음악이론으로서 다루어지는 분석의 범위는 3.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정한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들[예를 들어,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편송」에 관한 분석연구”(『음악과 민족』, 2010), “〈8명의 주자를 위한 옥타곤〉(Octagon for 8 Players)을 통하여 본 강석희의 고유한 작품세계와 비대칭성”(『음악과 문화』, 2014)]을 배제하고, 음악의 본질과 질서를 찾기 위한 음악이론 본연의 목적들과 음악이론의 사변적, 규정적, 서술적 전통의 범주 안에 집중 되어있는 분석연구들로 한정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 같이, 본 연구에서 갖는 분석연구의 제한된 범주는 우선적으로, 국내 음악이론가들에 의한 분석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을 기대하는 까닭이며, 나아가 음악이론사적 시각에서 ‘분석연구의 범위’를 한정시키므로, ‘음악이론의 범주’ 내에서 보는 분석과 ‘그 밖’의 시각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비중 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인 음악학 학술지들에는 전문학술지가 별도로 발간되는 분야인 ‘국악(한국음악), 음악교육, 음악치료’까지를 모두 게재 범주로 포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는 비교 대상에 놓인 학술지들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이에 따른 ‘음악학의 전반’이란 범위의 조작적 정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도별 추이 분석을 통해 8개의 음악학 전문 학술지들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이론 연구의 전반적 경향을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각 학술지별 차이에 따른 결과는 이에 따른 부차적인 산물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연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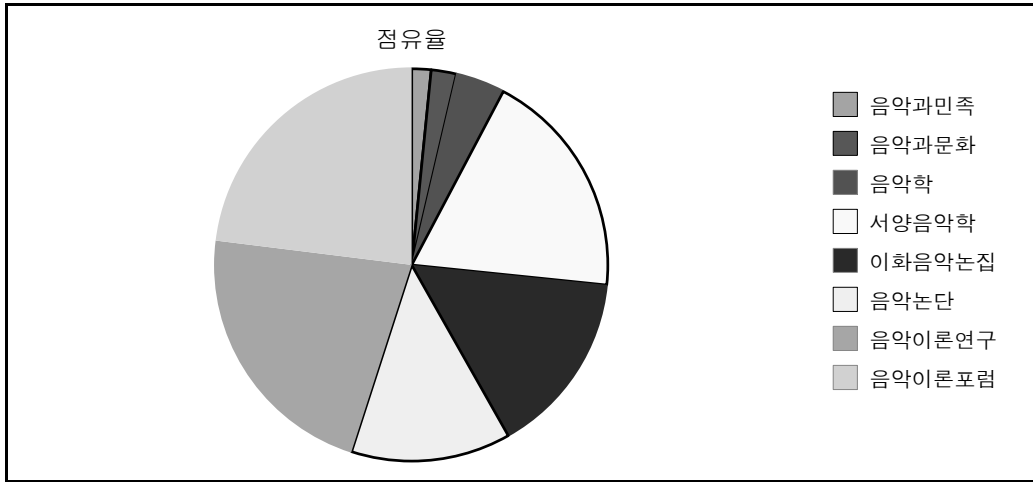
(표 8)은 각 학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이론 논문들의 연도별 빈도수(2006-2015)를 나타낸다.

(표 8) 학술지별 음악이론 게재 건수와 점유율(2006-2015)

년도 (전체 논문 수)	음악과 민족 (302)	음악과 문화 (166)	서양 음악학 (183)	음악 논문단 (121)	이화음악논집 (128)	음악이론연구 (110)	音·樂·學(118)	음악이론포럼 (63)	합 (1,191)
2015	0	0	5	2	1	6	0	6	20
2014	0	0	2	3	2	2	1	2	12
2013	0	1	1	1	1	5	0	2	11
2012	1	1	5	2	1	2	0	1	13
2011	0	1	7	5	1	5	1	3	23
2010	0	0	7	1	6	1	2	1	18
2009	2	0	6	2	4	2	0	2	18
2008	1	0	5	1	4	2	2	2	17
2007	2	1	6	2	5	2	0	1	19
2006	1	1	6	4	3	8	1	1	25
음악이론 논문 수	7	5	50	23	28	35	7	21	176
음악학 점유율(%)	2.3	3.0	27.3	19.0	21.9	31.8	5.9	33.3	14.8
음악이론 점유율(%)	4.0	2.8	28.4	13.1	15.8	19.9	4.0	1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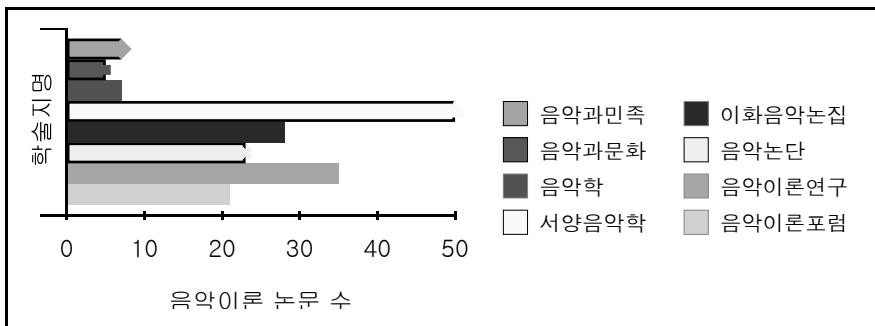
(표 8)에서와 같이,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에는 최근 10년(2006-2015)간, 1,19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그중, 176편이 음악이론에 관한 연구들로 분류되어, 음악학 연구의 14.8%가 음악이론 분야에 해당된다. 각 학술지별로 음악이론의 점유율을 구분하면, (그림 1)과 같이, 『음악이론포럼』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음악이론연구』(31.8%) → 『서양음악학』(27.3%) → 『이화음악논집』(21.9%) → 『음악논문단』(19.0%) → 『音·樂·學』(5.9%) → 『음악과 문화』(3.0%) → 『음악과 민족』(2.3%) 순이었다.

(그림 1) 학술지별 음악이론 점유율(2006-2015)



음악이론에 관한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서양음악학』에서 50편으로 가장 많은 편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음악이론연구』(35편) → 『이화음악논집』(28편) → 『음악논단』(23편) → 『음악이론포럼』(21편) → 『음악과 민족』·『흙·樂·學』(7편) → 『음악과 문화』(5편) 순이었다.

(그림 2) 학술지별 음악이론 논문 수(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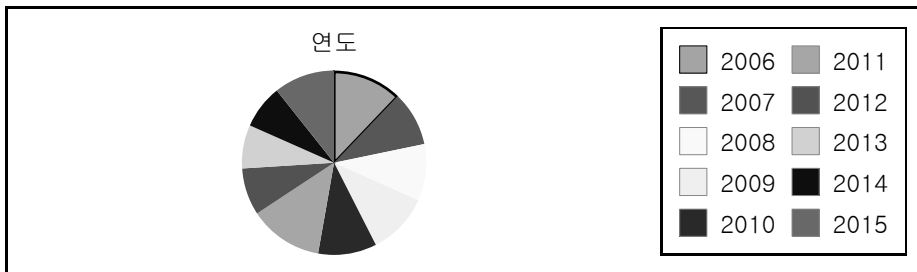
(표 9)는 연도별 음악이론 논문 게재 건수와 음악학에서의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연도별 음악이론 논문 게재 건수와 음악학 점유율(2006-2015)

연도 (전체 논문 수)	2006 (141)	2007 (135)	2008 (117)	2009 (114)	2010 (121)	2011 (122)	2012 (107)	2013 (99)	2014 (107)	2015 (128)	합 (1,191)
음악이론 논문 수	25	19	17	18	18	23	13	11	12	20	176
음악학 점유율(%)	17.7	14.0	14.5	15.8	14.9	18.9	12.1	11.1	11.2	15.6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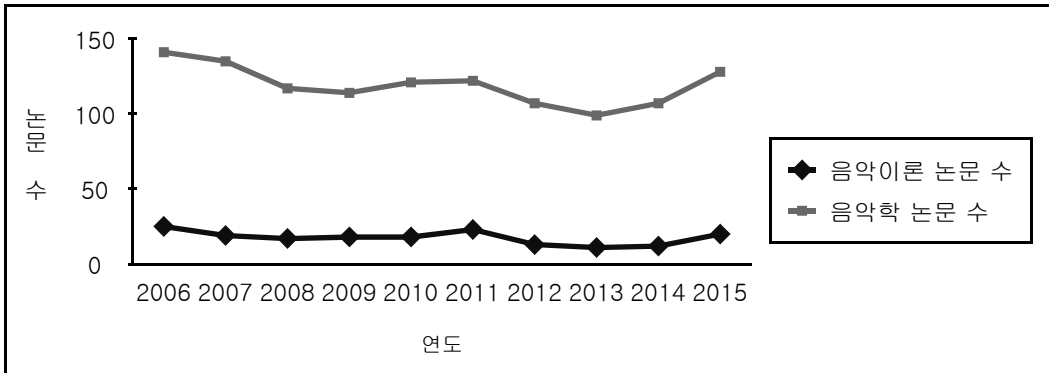
연도별로 볼 때, 음악학 연구 중 음악이론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11년(18.9%)이고, 가장 낮은 해는 2013년(11.1%)이며, 가장 많은 음악이론 연구가 발표된 해는 2006년(25편)이고, 가장 적게 발표된 해는 2013년(11편)이다.

(그림 3) 연도별 음악이론 점유율(2006-2015)



즉, (그림 3)과 같이 음악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점유율은, 2011년(18.9%) → 2006년(17.7%) → 2009년(15.8%) → 2015년(15.6%) → 2010년(14.9%) → 2008년(14.5%) → 2007년(14.0%) → 2012년(12.1%) → 2014년(11.2%) → 2013년(11.1%) 순이었고, 연도별 음악이론 논문 게재 건수로 정리하면, (그림 4)와 같이, 2006년(25편) → 2011년(23편) → 2015년(20편) → 2007년(19편) → 2009년·2010년(18편) → 2008년(17편) → 2012년(13편) → 2014년(12편) → 2013년(11편)의 순이 된다.

(그림 4) 연도별 음악이론 논문 수와 음악학 논문 수(2006-2015)



이와 같이,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에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평균 119.1편의 음악학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중, 17.6편이 음악이론 연구인 셈인데, 이는 8개의 학술지에 한해 평균 14.9편의 음악학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중 2.2편이 음악이론 연구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연도별로 볼 때, (그림 4)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음악학 전체의 논문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음악이론의 그래프는 일정부분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음악이론의 경우, 2011년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강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이 시기의 음악학 논문 수의 급감을 들 수 있다. 특히, 『음악이론 포럼』의 전체 논문 수는 2012년에 4편, 2013년에 4편, 2014년에 6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14년을 기점으로 이 두 그래프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2015년에는 음악이론을 포함한 음악학 전체의 논문 수가 급증하며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이는 음악이론 분야가 음악학 연구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과거 10년간보다는 오히려 향후의 음악이론 분야, 나아가 음악학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2. 연구주제 영역별 분석

(표 10)은 음악이론의 연구주제 영역별 분류를 빈도수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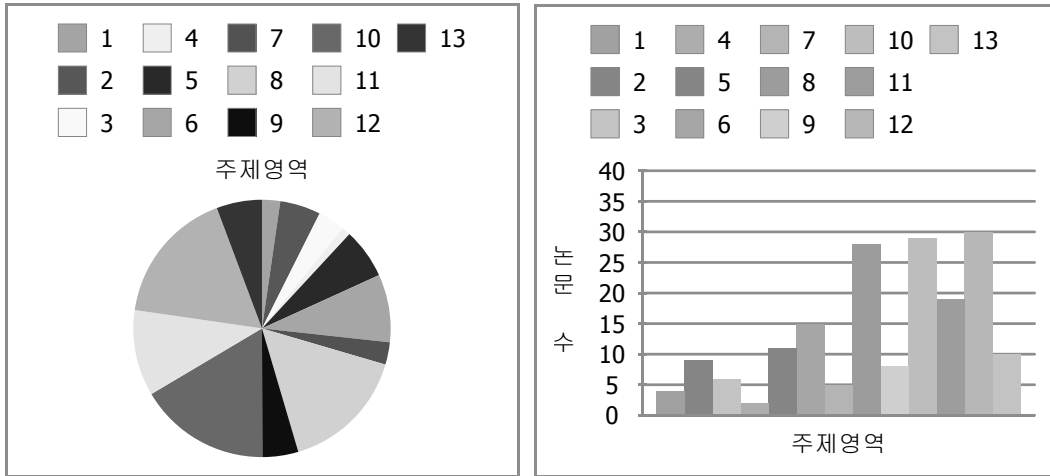
(표 10) 연구주제 영역별 논문 게재 건수와 점유율

분류 ³⁶⁾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
논문 수	4	9	6	2	11	15	5	28	8	29	19	30	10	176
점유율 (%)	2.3	5.1	3.4	1.1	6.3	8.5	2.8	15.9	4.5	16.5	10.8	17.0	5.7	100

(표 10)에서와 같이, 음악이론 연구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주제 영역은 분류 12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30편)이며, 다음으로 분류 10 “12음 작곡이론·집합이론·조성이후이론”(29편), 분류 8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28편), 분류 11 “음공간·변형이론”(19편)에 관한 연구들이 뒤를 잇는데, 13개 영역 중, 이 4개 영역의 게재 건수는 총 106건으로,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60.2%를 차지한다.

36) (표 6)과 같이, 분류 1은 그리스 음악이론·수와 음악이론, 분류 2는 선법과 조, 분류 3은 대위법이론, 분류 4는 계속저음·숫자저음이론, 분류 5는 리듬기보·리듬이론·20세기 음악의 리듬, 분류 6은 조성·화성이론, 분류 7은 과학적 음악이론, 분류 8은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 분류 9은 쉐커이론·셴커식 분석이론, 분류 10은 12음 작곡이론·집합이론·조성이후이론, 분류 11은 음공간·변형이론, 분류 12는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 분류 13은 기타 항목을 의미한다.

(그림 5) 연구주제 영역별 논문 게재 건수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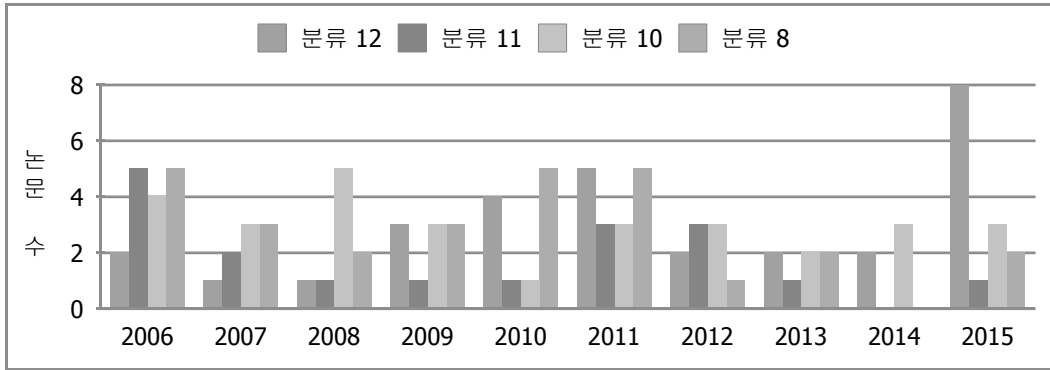
(표 11)은 음악이론 연구주제 영역 중, 상위 4개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1) 상위 4개 연구주제 영역별 논문 게재 건수와 점유율

연도 (게재 건수)	2006 (25)	2007 (19)	2008 (17)	2009 (18)	2010 (18)	2011 (23)	2012 (13)	2013 (11)	2014 (12)	2015 (20)	합 (176)
분류 12	2	1	1	3	4	5	2	2	2	8	30
분류 11	5	2	1	1	1	3	3	2	0	1	19
분류 10	4	3	5	3	1	3	2	2	3	3	29
분류 8	5	3	2	3	5	5	1	2	0	2	28
논문 수	16	9	9	10	11	16	8	8	5	14	106
점유율 (%)	64	47.4	52.9	55.6	61.1	68.6	61.5	72.7	41.7	70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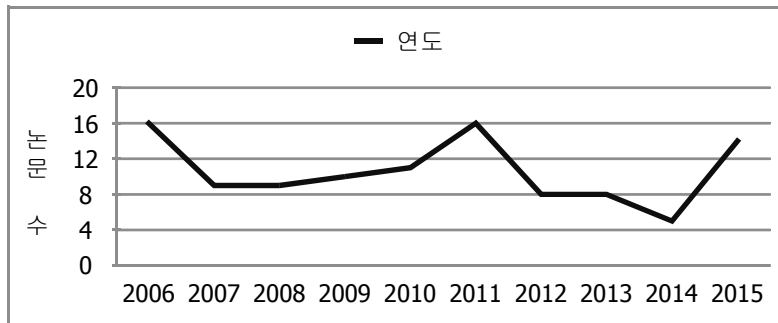
음악이론 연구주제 영역 중, 상위 4개 영역의 점유율은 많게는 72.7%(2013)에서, 적게는 41.7%(2011)까지를 보인다.

(그림 6) 상위 4개 연구주제 영역별 논문 게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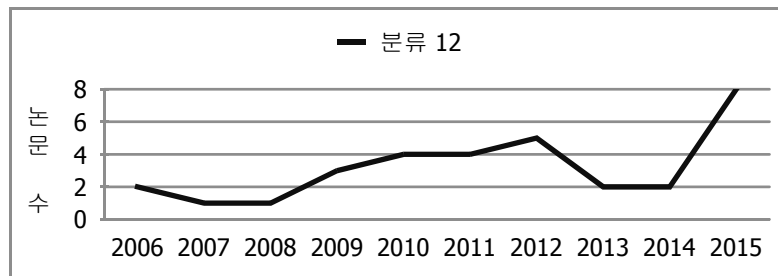


(그림 7)은 음악이론의 상위 4개 연구주제 영역을 연도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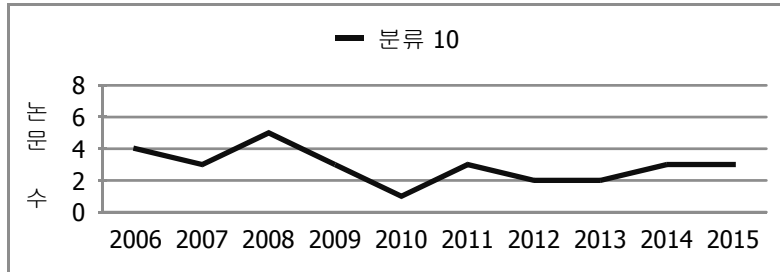
(그림 7) 상위 4개 연구주제 영역의 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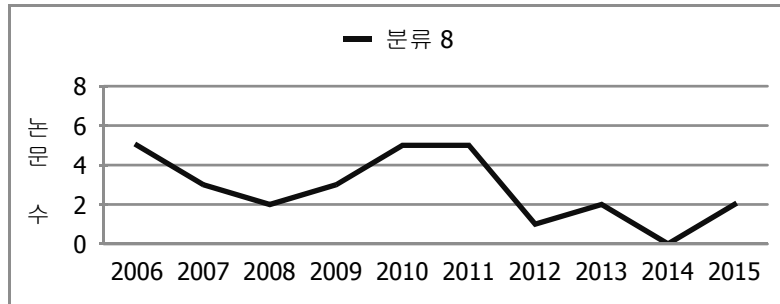
(그림 7-1) 분류 12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의 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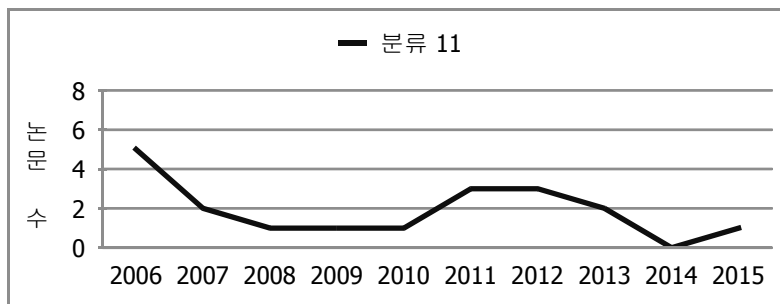
(그림 7-2) 분류 10 “12음 작곡이론 · 집합이론 · 조성이후이론”의 연도별 분포



(그림 7-3) 분류 8 “선율 · 악구구조 · 주제와 동기분석 · 형식”의 연도별 분포



(그림 7-4) 분류 11 “음공간 · 변형이론”의 연도별 분포



특히, (그림 7)의 상위 4개 영역의 연도별 논문 게재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그림 7-1)의 분류 12 “음악의 의미 · 내러티브이론”의 연도별 논문 게재 건수를 다룬 그래프는 연도별 게재 건수를 다룬 4개 영역의 그래프 중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는 이 주제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음악이론의 추이에 대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상승

세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의 방향성은, 최근 이 영역이 음악이론가들의 주된 관심 분야임을 시사한다. 반면, 이중, 그래프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림 7-4)의 분류 11 “음공간·변형이론”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이 영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사의 변화, 혹은 관심 영역의 이동 등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다.

4.3. 연구방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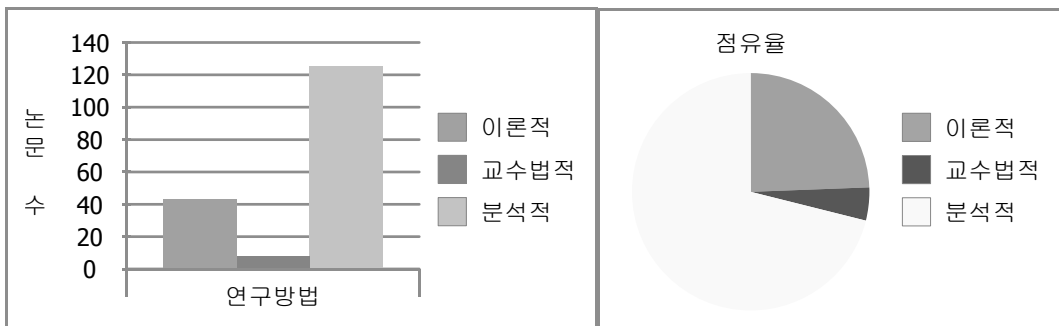
(표 12)는 음악이론 연구주제에 접근하는 연구방법에 대한 결과이다.

(표 12) 연구방법별 논문 게재 건수와 점유율

연구방법	논문 수	점유율
이론적 고찰	43	24.4
교수법적 고찰	8	4.5
분석적 고찰	125	71.0
합	176	100

음악이론의 연구방법으로는 분석적 고찰이 전체의 71.0%에 달했고, 이론적 고찰이 24.4%, 교수법적 고찰이 4.5%를 차지했다.

(그림 8) 연구방법별 논문 게재 건수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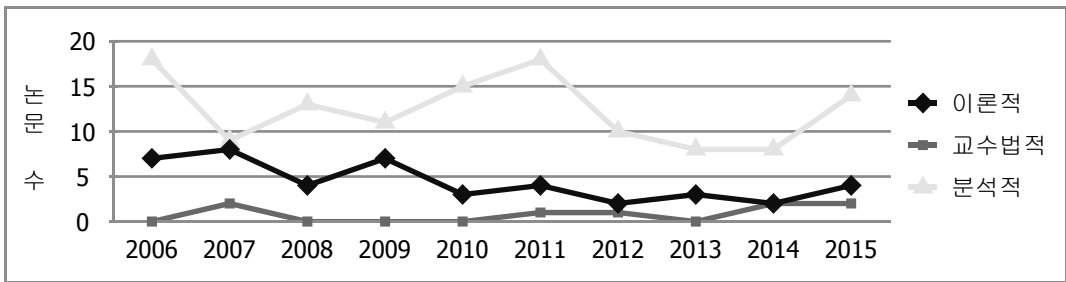
(표 13)은 음악이론 연구주제에 접근하는 연구방법들을 연도별 빈도수로 나타낸 것이다.

(표 13) 연구방법에 따른 연도별 논문 게재 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이론적	7	7	4	7	3	4	2	3	2	4	43
교수법적	0	2	0	0	0	1	1	0	2	2	8
분석적	18	10	13	11	15	18	10	8	8	14	125
논문 수	25	19	17	18	18	23	13	11	12	20	176

(그림 9)는 음악이론 연구주제에 접근하는 연구방법별 논문 수를 연도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연도별 연구방법의 분포



특히, 교수법적 고찰의 경우를 보면, 2011년 이후, 소수의 연구가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최근, 소수의 연구자들에게서 음악이론의 교수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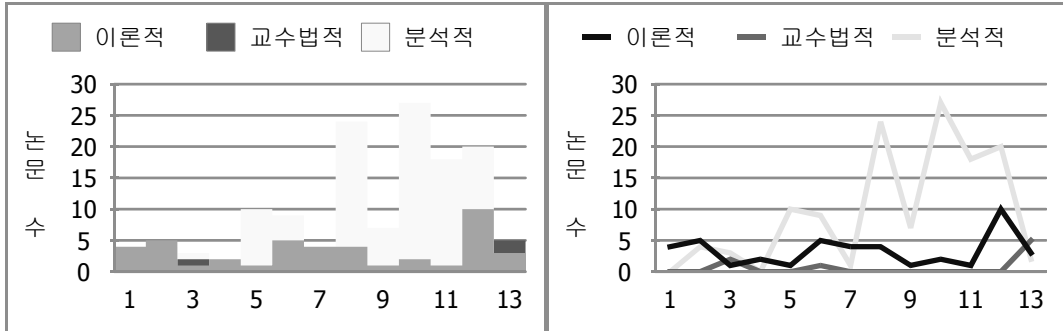
(표 14)는 음악이론의 연구방법을 연구주제 영역에 따른 빈도수로 나타낸 것이다.

(표 14)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주제 영역별 논문 게재 건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총
이론적	4	5	1	2	1	5	4	4	1	2	1	10	3	43
교수법적	0	0	2	0	0	1	0	0	0	0	0	0	5	8
분석적	0	4	3	0	10	9	1	24	7	27	18	20	2	125
논문 수	4	9	6	2	11	15	5	28	8	29	19	30	10	176

(그림 10)은 음악이론 연구방법을 연구주제에 따른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연구주제 영역별 연구방법의 분포



우선,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진 연구주제 영역을 보면, (표 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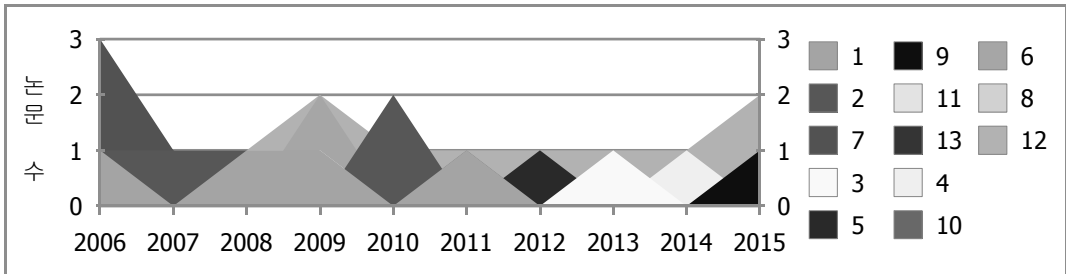
(표 15) 이론적 고찰의 연구주제 영역

분류 (영역별 논문 수)	1 (4)	2 (9)	3 (6)	4 (2)	5 (11)	6 (15)	7 (5)	8 (28)	9 (8)	10 (29)	11 (19)	12 (30)	13 (10)	합 (176)
2015	0	0	0	0	0	1	0	0	1	0	0	2	0	4
2014	0	0	0	1	0	0	0	0	0	0	0	1	0	2
2013	0	0	1	0	0	1	0	0	0	0	0	1	0	3
2012	0	0	0	0	1	0	0	0	0	0	0	1	0	2
2011	1	0	0	0	0	0	0	1	0	1	0	1	0	4
2010	0	2	0	0	0	0	0	0	0	0	0	1	0	3
2009	1	0	0	1	0	2	0	1	0	0	0	2	0	7
2008	1	1	0	0	0	0	0	1	0	0	0	1	0	4
2007	0	1	0	0	0	1	1	1	0	1	1	0	1	7
2006	1	1	0	0	0	0	3	0	0	0	0	0	2	7
논문 수	4	5	1	2	1	5	4	4	1	2	1	10	3	43
점유율	100	55.6	16.6	100	9.1	33.3	80	14.3	12.5	6.9	5.3	33.3	30	24.4

(표 15)를 보면, 특히, 분류 1 “그리스 음악이론·수와 음악이론”과 분류 4 “계속저음·숫자저음” 주제 영역에서 100% 이론적 고찰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음악이론의 사변적 전통의 특징들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택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분류 7 “과학적 음악이론”의 주제 영역에서 80%, 분류 6 “조성·화성이론”과 분류 12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 영역에서 각각 33.3%가 이론적 고찰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림 11)은 이론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주제에 따른 연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이론적 연구방법의 연도별 분포



다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교수법적 고찰의 연구방법은 분류 3 “대위법이론”(2007, 2014), 분류 6 “조성·화성이론”(2012), 분류 13 “기타” 항목에서 기초음악이론(2008)과 교양음악이론(2014(2), 2015(2))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끝으로, (표 16)은 전체의 71.0%에 해당하는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을 연구주제와 점유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 16) 분석적 고찰의 연구주제 영역과 점유율

분류 (영역별 논문 수)	1 (4)	2 (9)	3 (6)	4 (2)	5 (11)	6 (15)	7 (5)	8 (28)	9 (8)	10 (29)	11 (19)	12 (30)	13 (10)	합 (176)
논문 수	0	4	3	0	10	9	1	24	7	27	18	20	2	125
점유율	0	44.4	50	0	90.9	60	20	85.7	87.5	93.1	94.7	66.7	20	71.0

(표 16)에서와 같이,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은 분류 11 “음공간·변형이론”(94.7%), 분류 10 “12음 작곡이론·집합이론·조성이후이론”(93.1%), 분류 5 “리듬기보·리듬이론·20세기 음악의 리듬”(90.9%) 영역에서 90%이상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4.4. 학술지별 분석

각각의 학술지별로 음악이론의 점유율을 비롯해, 연구방법, 연구주제 및 저자별 분석 등을 재검토 하는 것은 학술지 간의 차이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부차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

히, 각 학술지의 음악이론 게재 저자들에 대한 분석은 국내 음악이론 연구자들의 연구 성향 및 연구 환경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의 의미임을 밝혀둔다. 다음은 그 내용으로, 8개의 학술지 중 집중적으로, 최다 음악이론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서양음악학』 과 음악학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음악이론포럼』 에 대해, 연도별 연구주제 영역과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을 다룬다.

1) 『음악과 민족』

『음악과 민족』 의 경우는 총 302편의 연구 중, 7건이 음악이론 영역에 속해 학술지의 2.3%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중, 이론적 고찰의 연구방법으로 중세 리듬기보를 다룬 연구가 1건(2012)이 있었으며, 나머지 6건은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을 따랐는데, 그 연구주제는 19세기 리듬이론 1건(2006), 12음 작곡이론 4건(2007, 2008, 2009(2)), 기호학이론 1건(2007)이 있었다. 분석대상은 쇤베르크 작품이 3건(2008, 2009(2)), 그 외 브람스(2006), 스트라빈스키(2007), 브리튼(2007) 작품이 각 1건씩 있었다.

복수 저자에 의한 공동연구는 없었으며, 복수 게재 저자는 안선현으로 2건(2006, 2009)의 연구가 있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물은 1건(정문혁(2012)) 있었다.

2) 『음악과 문화』

『음악과 문화』 의 경우는 166편 중, 5편이 음악이론 영역의 논문으로 학술지의 3.0%를 차지하였다. 이중, 이론적 고찰의 연구방법이 3건(2006, 2007, 2013),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이 2건(2011, 2012) 있었다. 연구주제로는 ‘분석이론 모델’(2006), ‘스트라우스의 무조음악분석모델’(2007), ‘슈만음악의 대화기법’(2011), ‘12음 작곡이론’(2012), ‘음악 제스처론’(2013) 등을 다뤘다. 이중, 분석적 연구방법을 취한 2건의 연구는 각각 슈만(2011)과 스트라빈스키(2012)의 작품을 택하고 있었다.

공동연구는 1건(2011)으로 이내선·이혜승에 의한 연구가 있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물은 없었다.

3) 『서양음악학』

(표 17)은 가장 많은 음악이론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서양음악학』 에서의 연구주제 영역별 게재 현황이다.

(표 17) 『서양음악학』의 연구주제 영역별 게재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
2015	0	0	0	0	0	0	0	1	0	1	1	2	0	5
2014	0	0	0	0	0	0	0	0	0	2	0	0	0	2
2013	0	0	0	0	0	0	0	0	0	1	0	0	0	1
2012	0	0	1	0	0	1	0	0	0	1	0	2	0	5
2011	0	0	0	0	0	1	0	0	1	0	2	2	1	6
2010	0	0	0	0	0	2	0	1	0	0	1	3	0	7
2009	0	0	0	1	0	0	0	0	2	0	1	2	0	6
2008	0	0	0	0	0	1	0	0	1	1	1	1	0	5
2007	0	0	2	0	0	2	0	0	1	0	0	0	1	5
2006	0	0	0	0	0	0	0	1	0	1	2	1	1	5
총 논문 수	0	0	3	1	0	7	0	3	5	7	8	13	3	50

(표 18)은 『서양음악학』에서의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이다.

(표 18) 『서양음악학』의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이론적	1	1	1	2	0	0	1	0	0	2	8
교수법적	0	2	0	0	0	0	0	0	0	0	2
분석적	5	3	4	4	7	7	4	1	2	3	40
총 논문 수	6	6	5	6	7	7	5	1	2	5	50

『서양음악학』의 경우는 총 183편 중, 50건이 음악이론 영역에 속해 학술지의 27.3%를 차지했다. 우선, 이론적 고찰의 연구방법은 8건(2006, 2007, 2008, 2009(2), 2012, 2015(2))이었으며, 교수법적 고찰의 연구방법은 2건(2007), 나머지 40건은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을 따랐다. 50건의 연구 중, 분석이론을 다룬 연구가 33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는데, 그 내용은 ‘12음 작곡이론·집합이론·조성이후이론’ 관련이 7건(2006, 2008, 2012, 2013, 2014(2), 2015), ‘웬커이론·웬커식 이론’ 관련이 5건(2007, 2008, 2009(2), 2011),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 관련이 13건(2006, 2008, 2009(2), 2010(3), 2011(2), 2012(2), 2015(2)), ‘음공간·변형이론’ 관련이 8건(2006(2), 2008, 2009, 2010, 2011(2), 2015) 등이 있었다. 기타 영역의 연구주제로는 ‘음악의 중의성’(2006), ‘기초음악이론교육’(2007), ‘인용기법’(2011) 등을 다룬 연구들이 포함된다.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 중, 단일 작곡가의 작품이 다루어진 경우, 쇤베르크(2008, 2009, 2011, 2015)와 모차르트(2006, 2007(2), 2009)가 각 4건, 베토벤(2008, 2010, 2012)과 리스트(2010, 2011(2))가 각 3건, 그 다음으로 브람스(2006(2)), 멘델스존(2010, 2012)이 각 2건, 그 외 쇼팽(2010), 존

코릴리아노(2011), 하이든(2011), 이상근(2012), 배빛(2014) 등이 있었다.

공동연구는 총 3건(송무경·안소영(2006), 이내선·안소영(2010), 안소영·송세라(2010))이었으며, 단독연구로서 게재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저자는 송무경으로 9건(2007(2), 2008, 2009(2), 2010(2), 2012, 2015)의 게재가 있었다. 그다음으로, 안소영 4건(2007, 2009, 2012, 2015), 권송택(2006, 2009, 2011), 이내선(2006, 2008, 2009), 박지영(2012, 2013, 2014)이 각 3건씩 게재가 되었으며, 2회 게재 저자는 모두 4명(서정은(2007, 2012), 김진호(2008, 2010), 정혜윤(2009, 2012), 박인아(2011, 2014))이었다.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는 7건으로, 송무경 3건(2008, 2009(2)), 박지영 2건(2013, 2014), 이내선 1건(2006), 권송택 1건(2011) 등이었으며, 이는 『서양음악학』에 게재된 음악이론 연구의 14%를 차지했다.

4) 『음악논단』

『음악논단』의 경우는 총 121편의 연구 중, 23건이 음악이론 영역에 속해 학술지의 19.0%를 차지했다. 이중, 이론적 고찰의 연구방법은 3건(2007, 2009, 2011)이었으며, 로마숫자 화성분석 효용성에 대해 다룬 교수법적 고찰의 연구방법이 1건(2012) 있었고, 나머지 19건은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에 속하였다. 서술적 전통에 의한 연구는 모두 6건으로, ‘마르크스의 형식론’(2009), ‘협주곡 형식’(2011), ‘주제와 동기분석’(2011) 등에 관한 것과 토픽이론 및 해석학 관련 연구가 3건(2011, 2014, 2015)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17건의 연구는 규정적 전통에 속하는 연구들로, ‘12음 작곡이론’에 속하는 연구가 3건(2006, 2013, 2015), ‘집합이론’에 속하는 연구가 1건(2010), ‘조성이후이론’에 관한 것이 3건(2006, 2008, 2011)이었으며, ‘변형이론’ 관련이 5건(2006(2), 2007, 2011, 2012), ‘웬커이론’ 관련이 1건(2009) 있었으며, 이외에 ‘대위법’ 관련이 1건(2014), ‘로마숫자 분석’ 관련이 1건(2012), 20세기 ‘리듬’ 관련이 1건(2014), ‘기타 음악용어’에 관한 논의가 1건(2007) 있었다.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에서 단일 작곡가의 작품을 다룬 경우, 리스트(2007, 2011)와 말러(2011, 2015)가 각 2건, 그 외 쇼팽(2006), 드뷔시(2006), 블레즈(2006), 스크리아빈(2008), 바그너(2009), 펄(2013), 하이든(2014), 베베른(2014), 서경선(2015) 등이 각 1건씩 있었다.

공동연구는 1건(배재희·김지현, 2006)이었으며, 게재 빈도수는 권송택(2007, 2014, 2015)과 안소영(2006, 2011, 2015)이 각 3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송무경(2009, 2012), 박인아(2012, 2013), 신영선(2007, 2011)이 각 2건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는 5건으로, 권송택 3건(2007, 2014, 2015)과 송무경 2건(2008, 2012)이 있었으며, 이는 『음악논단』에 게재된 음악이론 연구의 21.7%에 해당한다.

5) 『이화음악논집』

『이화음악논집』의 경우는 총 128편 중, 28건이 음악이론 영역에 속해 학술지의 21.9%를 차지했다. 이중, 이론적 고찰의 연구방법은 12건(2006(2), 2007(2) 2008(2), 2009(3), 2010, 2011, 2014)이었으며, 나머지 16건은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을 취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음악과 수학’(2008, 2010, 2011), ‘그리스 음악이론’(2009) 등 사변적 전통에 의한 연구, ‘12음 작곡이론’(2007, 2008(2), 2012, 2014, 2015), ‘리듬이론’(2009, 2010(2)), ‘선법이론’(2006(2), 2007, 2008), ‘변형이론’(2007, 2013), ‘조성·화성이론’(2009, 2010), ‘바소 콘타누오이론’(2014) 등 규정적 전통에 의한 연구, ‘토픽이론’(2009)과 ‘형식’(2006, 2007(2), 2010(2)) 등 서술적 전통에 의한 것이 포함된다.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에서 단일 작곡가의 작품을 다룬 경우, 슈만이 2건(2006, 2010), 그 외 오케겔(2007), 모차르트(2007), 마르티노(2007), 록버그(2008), 달라피콜라(2008), 리게티(2009), 쇼팽(2010), 낸캐로우(2010), 스트라빈스키(2012), 찰스 오우리넨(2014), 루쓰 크로포드(2015) 등이 있었다.

공동연구는 2007년에 3인 저자(이내선·안소영·김주연)에 의한 연구가 1건 있었으며, 게재 빈도수는 박혜자(2006, 2007, 2008), 배재희(2006, 2009, 2010)가 각 3회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류덕현(2008, 2010), 박인아(2013, 2014), 박을미(2010, 2014), 안선현(2007, 2012), 이현주(2009, 2011) 등이 각 2회로 뒤를 이었다.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는 총 3건으로 박을미 2건(2010, 2014), 이내선 1건(2010)이 있었다. 이는 『이화음악논집』에 게재된 음악이론 연구의 10.7%를 차지한다.

6) 『음악이론연구』

『음악이론연구』의 경우는 총 110편 중, 35건이 음악이론 영역에 속해 학술지의 31.8%를 차지했다. 우선, 이론적 고찰의 연구방법은 11건(2006(3), 2007, 2008, 2009, 2011(2), 2013, 2014, 2015), 교수법적 고찰의 연구방법을 다룬 대위법에 관한 연구가 1건(2014)이었고, 나머지 23건은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을 따랐다.(예외적으로 ‘과학적 음악이론’영역에서 실험연구가 1건(2013) 있었으나, 이는 분류의 편의상 분석적 연구에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분석이론을 다룬 연구는 ‘변형이론’ 3건(2006, 2012, 2013), ‘내러티브이론’ 관련 연구가 6건(2006, 2011, 2014, 2015(3)) 있었으며, 이외 ‘조성이후이론’ 관련 연구가 1건(2011) 있었고, 이외에 ‘선법이론’ 1건(2014), ‘20세기 리듬이론’ 1건(2015), 그리고, 기타 영역에는 ‘분석이론의 역할’을 다룬 연구(2006) 등이 있었으며, ‘음악심리학’ 관련 연구가 5건(2006(3), 2007, 2013) 있었다. 또한,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에서 단일 작곡가를 다룬 경우, 슈만 5건(2006(5)), 쇼팽(2008, 2010), 모차르트(2007, 2015), 헨델(2011, 2012)이 각 2건씩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외 베토벤(2009), 멘델스존(2011), 브람스(2013), 프랑크(2013), 클레멘티(2015), 베를리오즈(2015), 존 필드(2015), 스트라빈스키(2015)가 각 1건씩 있었다.

공동연구는 총 3건(김경은·이내선(2006), 이내선·최혜경(2007), 정현주·유가을·김수지(2013)) 있었으며, 단독연구로서 4회 이상 게재 저자는 안소영(2006, 2012, 2013, 2015), 3회 이상 게재 저자는 박지영(2011, 2015(2)), 이내선(2011, 2013, 2014), 정희원(2008, 2009, 2015), 2회 이상 게재 저자는 김미옥(2009, 2010), 이보경(2011, 2012), 이경면(2006, 2007)이었다.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는 7건으로, 안소영 3건(2012, 2013, 2015)을 비롯해, 정혜윤(2011), 정현주·유가을·김수지(2013), 김경은(2015), 박지영(2015) 등이 있었으며, 이는 『음악이론연구』에 게재된 음악이론 연구의 20%에 해당한다.

7) 『音·樂·學』

『音·樂·學』의 경우는 118편 중, 7편이 음악이론 영역의 논문으로, 학술지의 5.9%를 차지한다. 이중, 이론적 고찰의 연구방법이 2건(2010(2건)),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이 5건(2006, 2008(2), 2011, 2014)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 베베른(2006), 쇤베르크(2008), 스트라빈스키(2011)의 작품이 그 분석의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선법음악(2008, 2014)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있었다. 이들의 성격을 보면 규정적 전통에 의해 ‘12음 작곡이론’(2006), ‘20세기 음악의 리듬’(2008), ‘선법음악’(2010)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으며, 서술적 전통에 의해 ‘주제와 동기분석·형식’(2008, 2011, 2014) 등을 다룬 연구들과 기호학 관련 연구가 1건(2010) 있었다.

공동연구나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물은 없었으며, 게재 빈도수는 전정임이 2건(2008, 2014)으로 가장 높았다.

8) 『음악이론포럼』

(표 19)는 『음악이론포럼』에서의 연구주제 영역별 음악이론 게재 현황이다.

(표 19) 『음악이론포럼』에서의 연구주제 영역별 게재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
2015	0	0	0	0	0	1	0	0	1	0	0	2	2	4
2014	0	0	0	0	0	0	0	0	0	0	0	0	2	2
2013	0	0	0	0	0	1	0	0	0	0	0	1	0	2
2012	0	0	0	0	0	0	0	0	0	0	1	0	0	1
2011	0	0	0	0	2	0	0	0	0	0	0	1	0	3
201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2009	0	0	0	0	0	0	0	1	0	1	0	0	0	2
2008	0	0	0	0	1	0	0	0	1	0	0	0	0	2
2007	0	1	0	0	0	0	0	0	0	0	0	0	0	1
2006	0	0	0	0	0	0	0	1	0	0	0	0	0	1
총 논문 수	0	1	0	0	3	2	0	3	2	1	1	4	4	21

(표 20)은 『음악이론포럼』에서의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이다.

(표 20) 『음악이론포럼』의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이론적	0	1	0	0	0	0	0	1	0	1	3
교수법적	0	0	0	0	0	0	0	0	2	2	4
분석적	1	0	2	2	1	3	1	1	0	3	14
총 논문 수	1	1	2	2	1	3	1	2	2	6	21

『음악이론포럼』의 경우는 총 63편 중 21편이 음악이론 영역의 논문으로, 학술지의 33.3%를 차지했다. 이중, 이론적 고찰의 연구방법이 3건(2007, 2013, 2015), 교수법적 고찰의 연구방법이 4건(2014(2), 2015(2))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14건의 연구들은 분석적 접근에 의한다. 이중, 교수법적 고찰의 연구방법의 경우, 교양음악이론에 대해 다룬 연구가 4건(2014(2), 2015(2))이었으며,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의 경우, 분석이론을 다룬 연구가 8건으로, 쉐커이론 관련이 2건(2008, 2015), 조성이후이론 1건(2009), 변형이론 1건(2012), 내러티브이론 관련 연구가 4건(2011, 2013, 2015(2)) 있었다. 단일 작곡가 작품을 다룬 경우, 분석대상으로는 슈만(2010, 2015), 스크리아빈(2009, 2012)가 각 2건씩 있었으며, 그 외, 라이히(2006), 메시앙(2008), 헨델(2009), 리스트(2011), 낸캐로우(2011), 베베른(2011), 아이브스(2013), 쇼팽(2015) 등이 있었다.

공동연구나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물은 없었으며, 게재 빈도수는 최원선이 5건(2007, 2009, 2014, 2015(2))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박지영 4건(2006, 2008, 2013, 2014), 송무경(2008, 2015)과 안소영(2009, 2015)이 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9) 학술지별 분석의 종합

학술지별 재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방법의 측면에서이다. 음악이론의 연구방법은 분석적 고찰이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71.0%를 차지하는데, 특히, 단일 작곡가의 작품을 다룬 경우³⁷⁾, 슈만(11.0%)을 비롯한 쇤베르크(8.8%), 모차르트(7.7%), 리스트(6.6%), 쇼팽(6.6%), 스트라빈스키(5.5%) 등 작곡가 5명의 작품이 분석 연구의 46.1%를 차지했다. 이론적 고찰은 전체의 24.4%를 차지했는데, 특히, ‘그리스 음악이론·수와 음악이론’과 ‘계속저음·숫자저음’의 주제 영역은 100% 이론적 고찰로 연구되었으며, 교수법적 고찰은 전체의 4.5%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중 50%가 기타 영역인 교양음악이론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또한, 학술지별로 음악이론 연구방법의 점유율을 보면, 분석적 고찰은 『음악과 민족』(85.7%)에서, 이론적 고찰은 『음악과 문화』(60%)에서, 교수법적 고찰은 『음악이론포럼』(1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자의 측면에서이다. 8개 국내 음악학 학술지를 통해 10회 이상 게재한 저자(연 평균 1건 이상)는 모두 3명(박지영, 송무경, 안소영)으로, 이들의 연구는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23.3%를 차지했으며, 연구의 26.8%를 연구비 지원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 21) 10회 이상 논문 게재 저자

학술지명 (음악이론 논문 수)	음악과 민족 (7)	음악과 문화 (5)	서양음 악학 (50)	음악논 단 (23)	이화음악 논집 (28)	음악이 론연구 (35)	音·樂 ·學 (7)	음악이 론포럼 (21)	합 (176)
1. 박지영	1	0	3	1	1	3	1	4	14
2. 안소영	0	0	4	3	1	4	0	2	14
3. 송무경	0	0	9	2	0	0	0	2	13
학술지별 논문 수	1	0	16	6	2	7	1	8	41
학술지별 점유율	14.3	0	32	26.1	7.1	20	14.3	38.1	23.3

(표 21)과 같이, 이들에 의한 연구는 『음악이론포럼』의 38.1%, 『서양음악학』의 32%, 『음악논단』의 26.1%의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학술지의 발행기관이 대학과 관계된 『음악이론포럼』과 『음악논단』의 점유율을 이들 저자들의 출신학교와 비교했을 경우, 연세대학교 출신의 저자(박지영, 송무경)가 『음악이론포럼』은 75%, 한양대학교 출신(안소영)의 저자가 『음악논단』의 경우 50%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의 연구 영역을 보면, 박지영의 경우, 분류 10 ‘12음 작곡이론·집합이론·조성이후이론’에서 42.9%, 안소영의 경우, 분류 11 ‘음공간·변형이론’에서 42.9%, 송무경의 경우, 분류 9 ‘웬커·웬커식 분석이론’에서 46.2%의 연구를 하였다. 이는 연구자들의 연구 영

37) 분석적 고찰의 연구방법을 택한 125건 중, 단일 작곡가의 작품을 다룬 경우는 91건이었다.

역 및 관심 영역이 특정 분야로 전문화 되어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동연구의 측면에서이다. 공동연구의 비중은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4.5%를 나타냈는데, 그중 이내선은 62.5%의 연구에 관여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공동연구는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의 37.5%를 차지하는데, ‘과학적 음악이론’ 영역에서 1건(2013)의 실험연구가 공동연구로 진행된 것을 제외하고, 연구주제 영역 간과 공동연구와의 특이할 만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넷째, 연구비 지원의 측면에서이다.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는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13.1%를 차지했으며, 『서양음악학』과 『음악이론연구』에 각각 30.4%씩 게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음악이론연구』의 경우, 음악이론 게재 논문의 20%가 이에 해당했으며, 『음악과 문화』, 『음악·樂·學』, 『음악이론포럼』에는 연구비 지원에 따른 음악이론 연구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특히, 『음악·樂·學』, 『음악이론포럼』의 경우, 2016년에 들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다섯째, 학술지별 게재영역의 측면에서이다. 13개의 음악이론의 연구 영역을 보면, ‘그리스 음악이론·수와 음악이론’은 『이화음악논집』에서, ‘과학적 음악이론’은 『음악이론연구』에서 100% 게재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음악이론의 특정 영역에 대한 게재 결과는 학술지의 색채와 특성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가장 많은 음악이론 연구가 게재된 『서양음악학』에서는 ‘웬커이론·웬커식 분석이론’의 62.5%, ‘대위법이론’의 50%, ‘조성·화성이론’의 46.7%,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의 43.3%, ‘음공간·변형이론’의 42.1%를 게재하고 있었다. 그다음 순위로 음악이론 연구를 게재하고 있는 『음악이론연구』에서는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의 42.9%를 게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선법과 조’는 『이화음악논집』에서 44.4%를 게재하고 있었고, 기타 영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학술지는 『음악이론포럼』으로 전체의 40%를 게재하고 있었다.

5. 분석후기

이 연구는 음악이론의 학문적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음악이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둔 것으로, 분석을 마무리 하며 이 연구의 시작에서 던졌던 질문 네 가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그 결과가 의미하는 몇 가지 특징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5.1. 분석결과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비중은 어떠한가?”이었다. 지난 10년간,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에서 음악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14.8%으로, 연도별로 많게는 18.9%(2011년)에서 적게는 11.1%(2013)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각 학술지별로 음악학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비중은 33.3%(『음악이론포럼』)에서 2.3%(『음악과 민족』)이었으며, 음악이론 논문은 28.4%(『서양음악학』)에서 2.8%(『음악과 문화』)을 보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음악이론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이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연구물이 게재된 음악이론의 연구주제 영역은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17.0%)이다. 특히,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음악이론이 다른 인접학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을 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났음을 시사하는 음악이론의 새로운 갈래로, 우리나라의 음악이론학자들 역시 최근 음악이론 연구의 시류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음악이론 분야의 양적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영역은 무엇인가?”이었다. 음악이론의 연구 주제를 음악이론사적 관점에서 13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지난 10년간 국내 음악이론 연구의 주제 영역은 크게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을 비롯해, ‘12음 작곡이론·집합이론·조성이후이론’,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 ‘음공간·변형이론’ 등에 관한 4개 영역의 연구들이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60.2%를 차지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계속저음·숫자저음이론’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지난 10년간, 음악이론 연구의 의미 있는 추이는 무엇인가?”이었다. 우리나라 음악이론 연구에 있어 지난 10년간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의 집중화 및 단독연구의 강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내의 음악이론 연구의 주제 영역은 4개 영역에 60.2%가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방법의 71.0%가 분석적 고찰을 따랐으며, 3명의 연구자가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23.3%를 차지하였고, 음악이론 연구의 95.5%가 단독연구로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이론가들이 연구의 주제 영역과 연구방법에 있어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5.2. 진단

이 연구는 2006년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10년간의 음악이론에 관한 연구 경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게재가 2017년 12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의 동향을 지난 10년간의 연구경향과 비교해 간단하게나마 언급하는 것이 향후 음악이론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2)는 8개 학술지에 게재된 2016년 음악이론 논문 수를 나타낸다.

(표 22) 2016년 음악이론 게재 논문 수

학술지명 (전체 논문 수)	음악과 민족 (20)	음악과 문화 (13)	서양음악학 (13)	음악 논단 (13)	이화음악 논집 (18)	음악이론 연구 (12)	音·樂·學 (10)	음악이 론포럼 (8)	합 (107)
음악이론 논문 수	0	0	4	4	0	3	1	4	16
점유율	0	0	30.8	30.8	0	25	10	50	15.0

2016년에는 8개의 학술지에 음악학 연구가 모두 107건이 게재 되었으며, 이중 음악이론 연구는 16건이었다. 이는 전체의 15.0%로, 지난 10년간의 음악이론 점유율(14.8%: 176건/1,191건)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연평균 음악이론 게재 논문 수(17.6건)에는 미달하는 수치(90.9%)를 나타냈다. 또한, 8개의 학술지 중에서, 음악이론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학술지는 『음악이론포럼』(50%)으로 지난 10년간의 경향을 2016년에도 이어갔으나, 음악이론의 보유 논문 수에서는, 지난 10년간 『서양음악학』(27.3%)에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세 개의 학술지 『서양음악학』, 『음악논단』, 『음악이론포럼』에서 모두 동일한 수치(12.5%)를 나타냈다.

(표 23)은 2016년 음악이론 게재 논문들의 연구주제 영역에 대한 분류이다.

(표 23) 2016년 음악이론 게재 논문들의 연구주제 영역

분류	12.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	11. 음공간·변형이론	9. 쉐커이론·셴커식 분석이론	8.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	6. 조성·화성이론
논문 수	6건	2건	2건	2건	4건
점유율(%)	37.5	12.5	12.5	12.5	25

2016년의 음악이론 연구주제는 모두 5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게재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지난 10년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37.5%)이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수치(17.0%)를 크게 웃도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조성·화성이론’(25%)이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의 경향에서와 가장 구분되는 측면이다. 즉, 지난 10년간 ‘조성·화성이론’ 영역에서는 8.5%의 점유율(음악이론 점유율 순위 상위 다섯 번째)로, 연평균 1.5건의 연구가 게재가 되었던 것에 반해, 4건이 게재된 2016년 한 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향후의 변화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율·악구구조·주제와 동기분석·형식’, ‘셴커이론·셴커식 분석이론’, ‘음공간·변형이론’에서는 각각 12.5%의 점유율을 보였는데, 이는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을 포함해 4개의 영역에서 75%를 차지해, 지난 10년간 이 4개 영역에서 60.2%의 점유율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이론 주제 영역의 집중화 경향을 이어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0년간의 연구결과가 향후 학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외에도, 2016년 한해에만 3건의 공동연구가 있었다. 이는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18.8%로, 지난 10년간 총 8건(4.5%)의 공동연구가 게재되었던 것에 비해 4배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역시, 향후 10년간의 연구를 고찰하는데 있어 주목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2016년의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연구경향들의 흐름이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는, 8개의 학술지 중, 음악이론 색채가 가장 강한 학술지가 『음악이론포럼』이라는 점과 연구주제 영역에서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 두 현상은 향후 10년간을 조망해 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인데, 다시 말해, 8개의 학술지 중 음악이론가들의 투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술지가 『음악이론포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에 대한 음악이론가들의 관심도도 여타 이론이 새롭게 대두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들을 통합해 볼 때, 이 연구를 통해, 음악이론 학계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점은 바로 국내 음악학 연구에서 음악이론 연구가 차지

하는 비중이 15%에도 못 미친다는 실정일 것이다. 이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음악이론가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음악이론 연구자들의 양산’임을 시사한다. 즉, 음악이론가들은 음악이론의 학문적 토대를 세우고, 학문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음악이론의 학문적 존속 및 성장과 가장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음악이론이 음악학 영역에서 학문적 분리 혹은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포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4.1. 연도별 분석”의 (그림 4)에서와 같이, 음악이론 논문들의 게재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음악학 전체 논문들의 게재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그 흐름을 같이하며, 음악이론이 음악학 연구에 있어 종속적임을 드러낸다. 또한 음악이론의 연구 영역은 점차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반면, 학문을 바라보는 21세기의 시각은 점차 융합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에, 연구방법으로서 분석적 고찰이나 이론적 고찰 외에도 교육현장에서 음악이론의 활용을 위한 교수법적 측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제안하며, 학문의 다각화된 접근을 위해 각 전문영역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로서 문제해결 방식을 고려해 나가길 제안하는 바이다. 그 결과, 활발한 음악이론 분야의 연구 활동이 순수 학문에 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이어지고, 양질의 연구들로 선순환 되어, 음악이론과 나아가 음악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

6. 나가면서

‘연구경향’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연구 관점들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연구경향’에 관한 고찰은 시간성,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변화성을 포함한다. 이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연구의 ‘연속성’ 위에, 학문이 갖는 ‘방향성’이 시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음악과 민족』, 『음악과 문화』, 『서양음악학』, 『음악논단』, 『음악이론연구』, 『이화음악논집』, 『音·樂·學』, 『음악이론포럼』 등 8개 음악학 전문학술지에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게재된 총 1,191편의 논문들 중, 추출된 176편의 음악이론 연구들을 중심으로, 간행시기별 빈도 분석을 통해 음악학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비중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 음악이론 연구의 주요 흐름을 음악이론의 연구주제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음악이론가들의 관심사 및 양적 결과에 따른 통계 수치로 파악하여,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 및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론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셋째, 국내 음악이론 연구의 접근 방법들을

분석적, 이론적, 교수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넷째,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 8개에 게재된 음악이론 연구의 내용과 학술지별 차이점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국내에서 음악이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가 아니다. 이는 음악학의 타 영역들에 비해 음악이론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많은 한계점과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음악이론 연구 분야의 학문적 발전 가능성과 학문적 방향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지난 10년간의 ‘음악이론 연구경향에 따른 결과들이 음악이론에 대한 교육의 현장과 연구영역에 있어, 우리나라 음악이론 전공자들 및 음악이론가들에게 음악이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그 내용은, 첫째,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에 실린 음악이론의 비중을 가늠하므로, 음악학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위치를 파악하며, 둘째, 연구주제 및 내용 분석, 연구방법별 분석에 따른 결과를 국내 음악학의 총체적인 맥락 하에서의 음악이론 연구들의 흐름으로써 파악하며, 셋째, 이러한 음악이론 분야별 비중에 대한 파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과제를 진단하게 하므로, 음악이론에 관한 연구문제들의 해결을 도울 실마리를 제공하며, 넷째, 음악이론의 후속 연구들에 대한 학문적 동기를 마련하고 연구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도우며, 다섯째, 학문의 세계화의 입장에서 국내의 음악이론 동향들을 국제적 경향 속에서 재조명하므로, 앞으로의 국내 음악이론 연구 분야, 나아가 국내 음악학 연구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검색어

연구경향(research trend), 음악이론(western music theory),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음악과 민족(Music and Korea), 음악과 문화(Music and Culture), 서양음악학(Journal of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음악논단(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of Music), 이화음악논집(Ewha Music Research), 음악이론연구(Journal of Music and Theory), 音·樂·學(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음악이론포럼(Music Theory Forum)

참고문헌

- 김미숙.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1 (2001): 1-19.
- 김수현. “일제 강점기 국악 관련 학술적 연구 경향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48 (2012): 77-120.
- 김연. 『음악이론의 역사』. 서울: 심설당, 2006.
- 김예진. “음악지각인지 연구 고찰을 통한 무조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공학』 26 (2016): 135-149.
- 김현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연구 경향 분석 -‘음악교육연구’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4/4 (2015): 49-68.
- 박기범.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80년 이후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9/2 (2011): 57-76.
- 박미경. “해외에서의 한국음악학 연구현황.” 『한국음악연구』 45 (2009): 118-148.
- 석문주.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2004): 92-128.
- 승윤희. “음악교육에서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연구 경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2002): 515-532.
- 이가원. “우리나라의 현악교육 연구 경향 분석: 음악교육 전공 석사 학위 논문(1974-2009)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45 (2010): 93-113.
- 이지예. “국악교육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5/1 (2016): 45-65.
- 이형환·박소현. “국악교육 연구현황 분석: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국악교육연구』 6/1 (2012): 111-135.
- 임미선. “한국음악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악연구』 43 (2008): 249-307.
- 조현아. “국내 음악치료 전문학술지 연구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Christensen, Thomas. “Content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Edited by Thomas Christensen, vi- 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인터넷 자료

- <http://dl.nanet.go.kr/SearchList.do>.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musicologykorea.scholarweb.kr/main.do>.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ksmt.org>.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musicology.or.kr>.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musicokorea.org/index.asp>.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s://www.nrf.re.kr/biz/journal/view?menu_no=13.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a654ebd19152e1d0ffe0bdc3ef48d419.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a8c889725895b4bd.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b808f21f803052cf.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d6aea9f5ce508bed.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06f56e0d6be11790.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7ae76a34d3870735ffe0bdc3ef48d419.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72788e47c1ca731cffe0bdc3ef48d419.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3a11008f85f7c51d&control_no=8338048a97556627ffe0bdc3ef48d419.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query=국악+연구경향&x=16&y=20>.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query=음악+연구경향&x=15&y=24>. 2017년 10월 3일 접속.
- <http://www.worldmusic.or.kr>. 2017년 10월 3일 접속.

mrc.hanyang.ac.kr. 2017년 10월 3일 접속.

musicie.ewha.ac.kr. 2017년 10월 3일 접속.

wmri.snu.ac.kr. 2017년 10월 3일 접속.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Western Music Theory and Analysis in Korean Journal of Musicology, 2006–2015³⁸⁾

Won Su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2006-2015) of music theories in eight Korean journals specializing in musicology that were registered at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hich include *Music and Korea*, *Music and Culture*, *Journal of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of Music*, *Ewha Music Research*, *Journal of Music and Theory*,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and *Music Theory Forum*. The study thus examined meaningful progress in the research of music theories in the nation including the analysis of the publication frequency of music theory papers in the nation, research topics and areas, methodologies, characteristics by the journals, percentage of music theories in musicology, major research flows, and principal methodologi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usic theory researches accounted for 14.8% in the eight expert musicology journals with the scope of 33.3% (*Music Theory Forum*)~2.3% (*Music and Korea*) among the journals. Second, music theory papers accounted from 2.8% (*Music and Culture*) to 28.4% (*Journal of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in the journals. Third, the publication percentage of music theories was in the range of 18.9% (2011)~11.1% (2013) for the last ten years. Fourth, the topic areas of music theory researches were divided into 13 according to the backgrounds in the history of music theories, and the findings show that 60.2% of the researches were concentrated on four areas led by *musical meaning · narrative theory* (17.0%). Fifth, 71.0% of the researches followed an analytical consideration when the methodologies of music theories were categorized into analytical, theoretical, and pedagogical

38)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B5A07918437).

considerations. Sixth, researches done by three music theorists accounted for 23.3% of the entire music theory researches. Seventh, 95.5% of music theory researches were carried out as independent researches. Finally, 13.1% of music theory researches were attributed to research funds with researchers preferring *Journal of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30.4%) and *Journal of Music and Theory* (30.4%) to publish their papers.

An examination of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music theories not only serves as a means to figure out the academic status of music theories in musicology, but also helps to understand overall changes to music theory researches in the nation profoundly. Furthermore, it allows researchers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science. In South Korea, it was only years ago that they start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usic theories and investigate them academically.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expected to hold their significance in that they offer “basic data” to propose a new research direction to music theory majors and music theorists in the n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area of research regarding music theories.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로 본 음악이론의 연구경향(2006-2015)

최원선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인 『음악과 민족』, 『음악과 문화』, 『서양음악학』, 『음악논단』, 『음악이론연구』, 『이화음악논집』, 『音.樂.學』, 『음악이론포럼』 등 8개 국내 음악학 전문학술지를 대상으로, 음악이론의 연구경향(2006-2015)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음악이론 논문들의 간행시기별 빈도 분석, 연구주제 영역 분석, 연구방법 분석, 학술지별 특징 분석 등을 통해, 음악학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비중, 연구의 주요 흐름, 주된 연구방법 등 국내 음악이론 연구의 의미 있는 추이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8개의 음악학 전문학술지에서 음악이론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8%으로, 각 학술지 별로, 33.3%(『음악이론포럼』)에서 2.3%(『음악과 민족』)에 해당했다. 둘째, 음악이론 논문은 각 학술지 별로 28.4%(『서양음악학』)에서 2.8%(『음악과 문화』)을 보유했다. 셋째, 지난 10년간, 음악이론의 게재 비중은 18.9%(2011년)에서 11.1%(2013년)을 보였다. 넷째, 음악이론 연구의 주제 영역을 음악이론사적 배경에 따라 13개 분야로 구분했을 때, “음악의 의미·내러티브이론”(17.0%)을 필두로 4개 영역에 60.2%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다섯째, 음악이론의 연구방법을 분석적, 이론적, 교수법적 고찰로 분류하였을 때, 71.0%가 분석적 고찰을 따랐다. 여섯째, 음악이론가 3명의 연구가 전체 음악이론 연구의 23.3%를 차지했다. 일곱째, 음악이론 연구의 95.5%가 단독연구로서 진행되었다. 여덟째, 음악이론 연구의 13.1%는 연구비 지원에 따른 결과물로, 연구자들은 『서양음악학』(30.4%)과 『음악이론연구』(30.4%)에서의 게재를 선호하였다.

음악이론의 연구경향에 관한 고찰은 음악학에서 차지하는 음악이론의 학문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음악이론 연구의 총체적인 변화를 깊이 있게 조망하기 위한 방법이 되며, 나아가 학문의 발전적 측면에 대한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에서 음악이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음악이론에 대한 교육의 현상이나 연구영역에 있어, 우리나라 음악이론 전공자들 및 음악이론가들에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제공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논문투고일자: 2017년 10월 30일

심사일자: 2017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1월 26일

